소망의 언덕



최 정 원 목사
광주스랑교회 담임

"범퍼는 긁으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언젠가 다른 교회에 들렀다가 아주 비싼 차를 긁었습니다. 리어 범퍼(Rear Bumper, 자동차의 후면 하단에 장착되어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와 뒷면을 보호하는 부품) 부분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수백만 원은 족히 나갈 법하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로 경비 아저씨께 말씀을 드리고 차에 메모를 남기고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놀라셨죠. 범퍼는 긁으라고 있는 거예요. 제 차는 괜찮으니까 목회 열심히 하세요.' 그날 저는 수백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참 좋은 사람, 고엘이었습니다.

그 후에 심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대문 근처에서 빨간 신호등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어떤 배달하시는 분이 정차하고 서 있는 제 차를 박아서 차 범퍼가 심하게 긁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에는 대학생 아이가 둘이고 아저씨도 택배를 하시는 일용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권사님의 말이 떠 올랐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범퍼는 치그러지기도 하고 긁기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순간 민큼은 그분에게 참 좋은 사람,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범퍼는 웬만하면 다 그냥 넘어 갑니다. "범퍼는 긁으라고 있으니까요."

읽기만 해도 들기만 해도 참 따뜻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세상은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심방을 가려고 교회 주차장에 나오니 심방용 차 앞에 우리 교회 성도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잘하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앞에서 뵈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운전을 하다가 정말 죄끔, 손으로 문지르면 없어질 것 같은 죄끔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앞 범퍼에 페인트가 묻었다. 신실한 부목사님은 사진을 찍어놓고 바로 차주에게 전화를 하고 우리는 심방을 갔다. 그 후 막무가내로 보험 처리를 요구해서 차량부와 상의 후 보험 처리를 해줬다. 아마도 앞 범퍼 전부를 갈 모양이었다. 그래, 보험은 이러려고 든거 아니겠어.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어제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주차장 봉로 모서리에 서 있는 차와 살짝 닿았다. 차를 빼놓고 살펴보니 페인트가 앞 범퍼에 조금 묻었다. 내 차는 몰티슈로 닦아보니 닦여졌다. 차주에게 전화를 했더니 밥 먹고 있으니 기다리란다. 보험 처리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얼마를 드리면 되겠어요 했더니 범퍼 교체 값을 달란다(차에 흔래 상처가 많아 흔인도 이디가 상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이다) 범퍼가 얼마인데요? 내 입으로 말을 못하니 공업사에 가서 알아보고 입금해 달란다. 공업사 공장장 왈, 그차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표 안나게 닦아 드릴게요. 목사님 차도 닦아 드릴게요. 내 차는 됐고 돈을 요구하니 얼마 주면 되겠느냐? 25~30만원 드리면 될기 갈네요. 그래서 25~30만원 이랍니다 전화했더니 30만원 입금해달래서 입금해 줬다."라는 글이었다.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을 목사님은 "나는 점점 바보가 되어 간다"로 달았다. 세상은 이렇다.

몇 년 전 광신대 도서관에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가 받으니 어느 여자분이 주차된 차를 이동 하다가 내 차를 발았으니 잠시 나와보라는 것이었다. 내려가 보니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대로 주차된 내 차를 꽤 상처를 냈는데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올뚝 파인 앞쪽 범퍼를 보고 나서 "괜찮으니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자 "아니 그래도 죄송해서…." "우리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괜찮습니다"라고 하자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쏜살같이 사라졌다. 지금도 그 사랑의 흔적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다. 내가 이런 설교를 어느 때 했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문자가 왔다. 오늘 어느 분이 제 차를 발았는데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범퍼는 긁으라고 있는 것이니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의사 전도 왕으로 알려진 서울영동교회 이병욱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한 번은 웬 낯선 남자가 병원에 원장님을 만나러 왔다가 원장님의 차를 긁었다는 보고를 받았단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자 아니다고 내려와 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 차가 많이 다쳐 있었단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분에게 그냥 가시라고하자 왜 이러시냐고 되물질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간증을 하셨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그 살만한 세상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있다.

"범퍼는 긁으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같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장이다.

목회산책

곁이 넉넉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좌우를 떠나 지나치게 정의로운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치관이 뚜렷하면서도 곁이 넉넉한 사람이 좋습니다. 큰 실수만 아니라면 기꺼운 허술한 모습을 보이는 이가 좋습니다. 아마 제 삶이 기치 중심적이지만 관계에 미숙하고, 실수도 많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이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친 확신도, 지나친 나이브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저를 조롱거리로 삼지 않는다면 관계를 쉽게 깨지 않습니다. 평소의 저는 제 필요를 위해 누군가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자존심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라면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하지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불의와 손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과 대화를 통해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변방에서 목회하며 가끔 소신이 담긴 글로 외부와 소통하다가, 직접 필드로 나갈 기회를 잡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 익숙지 않았던 만남과 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글로만 저를 아는 이도, 글 때문에 저를 경계하는 이도, 저를 전혀 모르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제가 쓴 분장보다 제가 건넨 인사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저는 옳은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옳은 말보다 먼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제 생각을 꺼내기 전에 상대가 살아온 자리를 먼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일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예의이고 어디서부터가 아첨인지, 어디까지가 겸손이고 어디서부터가 비굴함인지, 어디까지가 소신이고 어디서부터가 고집인지 만날 때마다 다시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빈말을 잘 못하고, 입에 발린 소리는 더 싫어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입을 닫는 것만으로는 다 가설 수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의 언어를 배우되 제 문장을 바꾸지는 않으려 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과 허리를 굽히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를 존중해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말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래서 저를 좋게 보는 이들도 있지만,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진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 진심이 닿는 자리도, 끝내 서먹함만 남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모든 자리를 배움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옴타리 안에서 말해 왔는지, 그 울타리를 넘는 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를 그 자리들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여기서 일관성이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상황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설교도, 목회도, 대인관계도, 글도, 행동도 그랬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할 앞으로도 그 일관성만큼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자리에 따라 소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경계를 넓힌 것이 아니라 저를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결을 내어주되 중심은 지키는 사람, 그것이 이제 나서는 이 길 위에서 끝까지 붙들고 싶은 제 모습입니다.



진 일 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망의 어두울 가운데서 건져내어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밝게 하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두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패센콧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패센콧 콤란출판사 / 비은주 지음)

